

# 9월 주말의 광장, 순천 도심이 청년들의 놀이터로!

## 잔디로드부터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올인원 도심 축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연향동 패션거리 일원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젊은이들의 해방구)'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과 맞물려, 청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됐다. 지난 6월 시민로와 8월 문화의거리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시민들의 큰 반응을 얻은 데 이어, 9월은 '청년'을 테마로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주말의 광장 트레이드마크는 단연 '잔디로드'로, 평범한 연향동 거리를 싱그러운 초록빛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여

기에 순천시 대표 캐릭터 루미의 10M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이 더해져, SNS 핫플레이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콘텐츠는 엔딩로드쇼, 캐릭터 팝업&전시, 크리에이터쇼,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테마로 거리를 채웠다. 캐릭터존은 유명 캐릭터 팝업과 전시가 준비되며, 크리에이터존은 구독자 수백만 명을 자랑하는 '츄츄는 곰돌이 랜덤댄스'와 '국가대표 팔씨름 선수 홍지승'이 직접 참여하는 팔씨름 도전 무대가 열려 시민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팍프, 하키 등 오락실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콘텐츠 놀이터와 청

년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플리마켓, 그리고 먹거리 부스까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재미 요소가 총출동한다. 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댄스 무대가 이어지며, 도심 한복판이 청년들의 에너지로 꽉 채워진다.

주말의 광장은 지역 상권을 키우고 도로를 차별화된 브랜드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도시 축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날을 맞아 도심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직접 놀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순천은 청년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 가을 매력 전국에 알린다... '함평어텀' 후기 이벤트  
참여자 20명에 3만 원 상당 상품 추첨 증정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봄, 여름에 이어 가을철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 '함평어텀'을 진행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함평어텀' 가을 관광 후기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한 여행 후기를 공유하며 함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관광객들은 가을의 특색이 담긴 사진 2장 이상과 후기를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커뮤니티)관광후기)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된 후기는 향후 함평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해 관광객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가을철 함평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함평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중순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가을을 직접 경험한 관광객들의 따뜻한 후기가 또 다른 방문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제15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하반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농업반 교육생 33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 80시간의 상반기 교육을 이수했으며, 7~8월 방학을 마친 뒤 지난 9월 11일부터 다시 배움의 장으로 돌

##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하반기 교육 본격 추진

아와 11월까지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은 총 5회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9월에는 각종 사업계획서 및 공모서 작성 방법 이론 교육, 10월에는 농업 박람회 현장 견학, 11월에는 사업계획평가회와 졸업식을 끝으로 모든 교육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매년 사업계획평가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다음 연도 농업 CEO 육성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역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올해로 14주년을 맞았으며, 지금까지 14개 과정 6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장흥군,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호응'

장흥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용산면과 안양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수리에서는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농업기계 위주로 예초기와 동력살분무기 등의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 순회 수리 현장에서는 자가 수리 요령 안내 및 농업기계 안전 취급 교육까지 함께 진행됐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0여대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주로 연료 공급 계통의 기화기 정비 및 교환, 점화플러그 교환, 연료호스 교환 등 소모품 교환이 이뤄졌다. 고령 농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농업기계를 점검해 주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 제공



### 무안읍,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전개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고영일), 무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어성준), 무안읍 공무원 등 50여 명은 지난 11일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오전 8시부터 펼쳐진 이번 활동은 무안읍 백련스파와 평용IC 인근 도로변 일대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마을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며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시 거리 조성에 기여했다.

고영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작은 노력이 모여 무안읍을 더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깨끗한 마을환경과 걷기 활동은 주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다. 살기 좋은 무안읍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 진도군, '운림산림욕장 꽃무릇' 개화

진도군은 꽃무릇 개화기간에 맞춰 9월 12일(금)부터 10월 5일(일)까지 운림산림욕장의 편백 숲터 구간을 야간개장한다고 밝혔다.

산림욕장 내 산책로를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꽃무릇 약 50만 본이 식재됐으며, 요양병원에서 산림욕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쌍계사, 두목재, 장미원(운림예술촌) 등 사천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붉게 피는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다.

야간 개장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편백 숲터에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해 현재 개화 중인 꽃무릇을 가을밤에도 즐길 수 있게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운림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현장 안내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